

◀기쁜 우리 날들▶ 그대 곁을 떠나며

김성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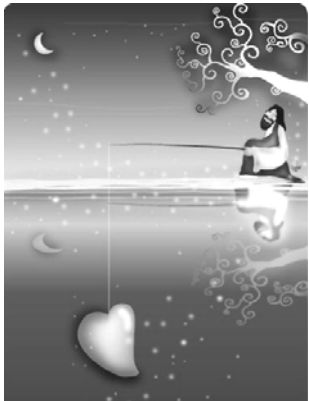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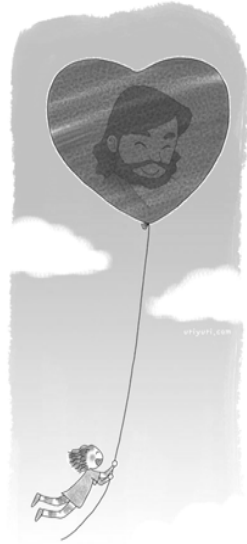
헤어짐이 두려운것은  
잊혀질까봐 아니라  
그리움이 식어질까봐 입니다.

세월 흘러 어느 날  
비무리 무게의 그리움에  
다시 꼬박 밤을 지새야 하기엔  
이젠 너무 약해져있습니다

이제 그대들과 함께 한 천국에서  
떠날 시간 점점 다가와  
잔물결 같은 그리움들을  
시름없이 주워 담습니다

살다 주저앉고 싶어지는 날 오면  
눈물보다 질은  
그 그리움의 내음을 섬돌 삼아  
다시 힘내겠습니다.

힘겨운 말 한 마디로  
마지막 인사 합니다  
“한 때 사랑했던 사람으로  
기억하지 않겠습니다.  
잊지 못해 가슴 아픈 고운 사랑들로  
기꺼이 품고 살아가겠습니다”



◀그림말씀▶ 사랑으로 낚는 어부

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신 그 명령따라  
사람을 낚을 수 있는 비법은  
사랑이라는 바늘뿐입니다.

주님의 사랑을 품고  
세상에 잠겨보세요  
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 
세상의 바다에 너무 많습니다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전도: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의 증인됨시다 (눅 24:48) <b>갈보리교회</b>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2009 11권 29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9년 7월 19일
☎ 369-5077. St David's Church. 70 Khyber Pass Rd. Grafton .		www.calvary.org.nz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

A.M 오버튼



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 
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 
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 
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 입니다.

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나갈지 모르며  
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 
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 
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 입니다.

늦은 밤 어두움이 깊어  
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 
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까닭은  
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 입니다.

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 
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 
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 
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 입니다.

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 
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 입니다.  
가는 이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 
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

◀말씀 따라 행하기▶

하나님은  
바쁘게 일하시지만  
돕기를 좋아하십니다

◀인품 따라 행하기▶

다른 사람이 모두  
아니라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  
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 
책임감이란걸 심어 줍니다.

# 주 일 예 배

(\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## 하나님 생각하는 연주 찬양

<b>목도와 참회의 기도</b> Pray & Confession		다 같이
*찬 송 Hymn	28 장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찬 송 Hymn	410장	
기 도 Pray		최득수 집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빌립보서 3:12-14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Half Time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364장	다 같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응 답 송 esponse Song	여기에 모인 우리 (1절:김성국 목사 가정 2절:다같이)	다 같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\$ 500	총액:\$ 575,049.94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갈보리 성경 100독: 92독 김경수 집사
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◆7월 예배위원◆

일자	주일기도	수요기도	특 송	주차부	안 내
5	정관영	김종우	예배부	김광영	*새교우: 박수현
12	정희자	김지혜			
19	최득수	김철재	주차부	최현철	
26	최재학	김혜옥	재정부		

### ◆7월 교회력◆

주일 & 예배	모 임
5	청년수련회(3-5) 구역예배(10) 결식자봉사(11)
12	교회창립일 임직식. 아동부캠프(17-18)
19	구역예배(24)

『2009 신앙생활』 전도: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의 증인됩니다 *이웃에게 친절 친절 그리고 또 친절 *교회출석 권유 *새교우를 외로움 느끼게 하지 않기	『교 회 등 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.아동,학생:오후 1시	수요예배: 7:30 pm
새벽기도회:금 5:50	청년예배:주일 2:40pm

- 교우소식  
<축하해주세요> 조병희 집사(백문중 집사). 셋째를 태중에 가졌습니다  
<아기 안고 한국에서 귀국> 김휘열.이숙희 성도. 행복하게 자라거라 아가야!
- 금주는 정기구역예배주간입니다.  
\*함께 신앙의 간증 나누고 중보기도로 용기와 위로 얻는 자리가 되십시오
- 김성국 목사. 오늘로 그동안 함께 믿음을 키워 온 갈보리교회를 사임하고  
한국으로 부임(출국:21일)
- 제직회 의결사항 : 1)담임목사: 이태한 목사 추대  
2)위임투표: 6개월 이내 공동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.  
(담임목사에 관한 교회법: "임시목사"는 제직회 의결사항.  
"위임목사"는 공동의회 의결사항입니다)
- 아동부캠프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.  
\*교사들의 수고 그리고 도움과 기도로 함께 한 교우들의 사랑을 주님께서서  
기억 하십니다.

\*\*\*\*\*

### 목사의 소원

김성국

반짝이 옷  
흰색 에나멜 구두  
반지르한 머리  
어느 허름한 장터무대 무명가수 되어  
삶이 힘든 땅의 사람들을  
잠시 웃음 짓게 해주고 싶다.

저들의 힘겨운 시름  
때 내어 주지 못하고  
예배당 문 나서게 하는  
나의 속 빈 설교보다  
광대 같은 내 노래에  
잠시 세상 시름 잊게 해 주고 싶다  
아내도 나와 듀엣하고 싶었겠다.

### ◀한 줄로도 긴 생각▶

새로운 것을 잡으려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 
내려놓고 있는 중이다 - 김 목사 -